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월 10일 (제82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난 연말 평택교회 이진예배를 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앞으로 30년 같 길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가야할 길이 너무 먼 듯 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30년을 더 가야한다는 게 상당한 무게로 느껴졌다.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다더니 나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그러나 그 무게에 눌릴 나도 아니고, 놀리고 싶지도 않아 마음을 다잡고, 나이 70에 교회를 이진한 평택교회 박종수 목사에게 '30년 같이 가자'고 파이팅을 외쳤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무게가 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무게로 인하여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다리에 힘을 더욱 주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 30년, 내 어깨 위에 얹어진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주저앉을 정도로 무겁고 버거웠다. 그러나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그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였다. 그것 때문에 나는 더욱 기도했고, 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달렸고, 그것 때문에 나는 겸손을 배웠다. 빈 배는 풍랑에 좌초되기 쉽다. 실린 짐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잡고 멀리 간다. 누군가 자기 등의 십자가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잘라달라고 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주님이 '네 등의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오라'고 했을 때 십자가가 짧아 건너지 못했다는 꿈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 하나님은 감당할만한 무게만 우리에게 얹히신다. 행여 힘에 겹다고 느껴질 때 뒤를 보면 주님이 그 짐을 받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삶의 무게에 눌려 포기하지 말라. 주저앉아 낙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함께 30년 같이 가자!

2016년, 파이팅을 외치며 달려보자!

당신의 마음밭에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가?

"예전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드리던 때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잔칫집이네요."
신년축복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소감이다. 총회장 목사님이 '이 성회가 축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데, 그 기도대로 성회는 그야말로 한마당 잔치로 축제였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된 2016 신년축복성회는 전국에서 몰려든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입구까지 의자를 깔아야 할 정도였다.

총회장 목사님은 단에 오르셔서 '달리다 굶 일어나라'는 찬양 후에 '세상사 일체

정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연초가 되면 마음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올해는 다시 사업을 하겠어', '운동도 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나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요. 길쌈을 매고, 거름을 주고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를 심어놓으면 새가 와서 쪼아 먹고, 쥐가 땅을 들쑤시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가족, 회사 동료, 이웃, 심지어 구역식구를 통해서 "그런다고 되겠어?", "그건 안 돼." 하며 브레이크를 걸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옥토에 뿌린 씨가 잘 자라고 열매를

7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며 '세계교구'라는 씨를 심고 가꾸었더니 목회 31년이 되었고, 오늘날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교단에서 각 분야의 수장은 물론 통치권자도 나온다는 씨입니다. 저는 누가 비웃든 말든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말입니다.

제가 농사꾼의 자녀라서 잘 아는데 배추 심으면 배추나지 무 안 납니다. 성경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2016 신년축복성회(1월 4일 ~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유심'이란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다.

"세상사 일체유심(一切有心)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즉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다 내 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에 풍성하길 원하지요? 그렇다면 마음의 묵은 지경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공의 씨, 건강의 씨, 사랑의 씨, 긍정의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 성공의 열매요, 건강의 열매요, 사랑과 긍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린 좋은 씨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옥토란 돌이 제거되고 비옥한 땅을 말하는데, 내 마음에서 부정을 제거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옥해야 좋은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지켜주는 이가 있고, 가족도 지켜주는 이가 있고, 기업도 지켜주는 이가 있지만, 내 마음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심은 씨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초기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이초석은 3년이면 망한다, 잘 가

여러분, 마음먹는데 돈 안 듭니다. 마음 지키는데 학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그것을 가꾸세요.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법, 인내의 시간이 요구되지만, 분명히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혹 당신이 거두지 못하더라도 당신 후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었는가? 지금 당신 마음밭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을 키워라.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새로운 30년을 기대하며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리라



새해 전국잔치의 한마당, 신년축복성회



함께 춤을 추며 찬양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43:1~25)

두려움은 우리 삶의 암적 존재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간을 당신 형상대로 지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너희 것이니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366번이나 지속적으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강조하셨을까요? 두려움은 인생의 암적 존재요, 신앙의 암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암이 우리를 죽이는 존재이듯,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신앙이 고갈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이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둔 밤길을 가자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간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악한 마귀의 꾀계가 악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 뒤에는 항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니엘이 과감히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평소보다 칠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담대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은 사자를 베게 삼고 누워 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

제가 세상의 핍박과 모함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 같이 썸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 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사51:7~8)는 말씀을 부어잡았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귀신을 쫓을 때 안 나가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 한 적이 없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에 중부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병든 자들을 안수하는데 귀신이 저더러 “야! 너는 못 쫓아.” 그러는 겁니다.

순간 겁이 덜
컸 냈습니
다. 그
런데
순

간
제 입
에서 “그
래, 나는 못
쫓아. 그런데 너
예수 알아? 예수 이름으

로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성도가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제 입술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명령권자가 책임도 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쫓으니까 책임도 그 분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담대하게 귀신을 쫓게 되었습니다.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창22:16~17).
당신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순종을 드러
보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동이 난 사르
 밧의 과부는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
 로 떡을 만들어먹고 아들과 죽으려 했습
 니다. 그 무렵 사르밧을 지나던 엘리야
 가 그 집에 들러 먼저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배고파
 눈이 쾅한 아들을 쳐다보면서 갈등했으
 나 결국 선지자에게 그 떡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왕상
 17:14).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예를 드
려보세요. 당
신의 열려
가, 당
신의 두

려
 움 이
 님의
 으로
 사라질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도를 해보세요. 하스기아처럼 눈물이 강을 이루도록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될 것이고, 엘리아처럼 땅에 엎드려 가람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면 마른 땅, 메마른 삶에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던 길도 안 보이고, 들리던 것도 안 들리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당신 곁에서 늘 당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제 둘째 아들 녀석이 특수부대에 있을 때, 낙하훈련을 하고 받은 수당으로 제게 붉은 카디건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수당으로 받아 선물을 사온 것입니다. 진짜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감동시킨 며느리 톱으로 인해 가문이 살아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
리고 돌아온 탕자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삶에 임하는 것을 깨닫고 체
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답력은 필요합니다. 한 시대의 맥을 그은 인물들은 담대함으로 거사를 도모하고 이뤘습니다.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

**전쟁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심리전이다**

에디슨을 비롯한 발명가들, 허영호 같은 에베레스트, 남극점 탐험가들...

시험을 봐도, 면접을 봐도, 사업을 해도, 연애를 해도, 담대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자가 두려운 자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혼할까 봐 두려운 자는 결혼하지 말고, 맞는 것이 두려운 자는 챔피언의 꿈을 버리라.” 두렵거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사세요. 권력자나 지력자, 돈이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골짜기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사51:12).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 그럼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분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도 사라지지만, 아울러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눅 들어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나 왕자가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하늘과 땅, 땅 아래의 것을 명령하고 호령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금요일예배시간 변경안내

**2016년 2월 첫 주부터
금요일집회가
수요일집회로 바뀝니다**

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장소: KBS 88체육관
문의: 02. 533. 9191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공포가 있는 곳에 행복은 없다

나님의 사자와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골리앗을 향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삼상17:45).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랴이 훼방하고 핍박에도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느4:14).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24년 개근했습니다



사람팔자 시간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대통령' 낳았다, 재벌 낳았다, 박사 낳았다, 목사 낳았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붙잡혔느냐에 따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992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교단 신학교에 첫발을 내디딘 때입니다. 비천한 계집이 주의 종이 되다니 천지가 개벽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때 우리 학년의 신학생 수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교실이 차고 넘쳤습니다. 수가 많다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놀던 동생들이 찾아와 '행님' 하는 자도 있었고, 기도원 식당에서 매일 칼질만 하는 자도 있었고,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자가 수두룩했습니다. 그중의 한분이 대전교회

를 담당하시는 이역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저처럼 예수 '예'자도 모르고 신학교에 들어왔으니 총회장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먹고 못가면 지고라도 갈 정도로 술 좋아하고 못 먹어도 '고' 하시고 놀기도 좋아하셨던 그런 형님(총회장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180도로 돌변했으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신학교 2학년 때까지도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충성스런 목회자가 되었고 세분(총회장 목사님, 이시대 목사님, 이역사 목사님)중에서 제일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 졸업할 때는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괜찮은 사람들, 쓸모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저를 비롯해 별 볼일 없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하나같이 빈 강통 구둣발로 확 밟아 뭉개 찌그러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중국 노자에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주하시는 말씀이지요. 곧고 쪽뿔은 좋은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띄어 일

찍 베임을 당하지만, 굵은 나무는 오래 남아 선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주변을 돌아보니 그 말이 어찌 그리 맞는지요. 사람 팔자 시간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문벌이 좋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모가 아름답다고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1:26~29).

광명 철산리에서 한명을 놓고 시작한 목사님의 사역이 전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장입니다. "한 알의 밀들레 씨 철산리 길가에 눈물로 싹 띄워 꽃피더니 바람을 타고 인천을

거쳐 서울을 덮고 한반도를 아우르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중국대륙 등 오대양 육대주에 아름답게 피어났네." - 목사님의 시 '밀들레' 中 -

목사님은 다시 30년을 똬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놀라기도 했고, '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꾸벅 조는데 "다시 뛰는 30년이 너에게 희락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너무 기뻐 웃다가 잠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0년을 다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목사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고독... 자다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그 증세가 싹 사라지고 평강이 넘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목사님을 따라와 24년을 개근했습니다.

2016년에도 변함없이 앞으로 30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개근상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전미자 전도사

25년 동안 내가 본 목사님



저는 처음 가정사의 문제로 아내를 따라 1989년 늦더위로 뜨겁던 어느 가을날, 인

천 송의동 한국예루살렘교회에 처음 가 보았습니다. 하얀 양복에 백구두를 신은 채 바짝 마르고 머리는 장발인 모습의 이 초석 목사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던 당시 제 생각에 '참 성깔 있게 생기셨네!'라고 느꼈습니다. 관심 없이 예배를 보는데 순간 보면서도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땀을 비 오듯 흘리시며 설교하시는데 웬 젊은 청년이 싸우려고 작정한 듯 맹렬하게 강단위로 목사님을 향해 돌진하는데, 목사님은 전혀 당황치 않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시니 그 청년이 당시 1층 높이는 더 뿔던 것 같은 강단 2/3부분에서 뒤로 벌렁 나가떨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근처도 못가서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저거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그 청년이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본 목사님은 강렬한 모습으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 1년 정도가 지난 1990년 가을부터 다시 잠실학 생체육관을 찾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때의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급하고 강하게 성령을 받고 새로이 거듭났습니다. 1991년

안양집회 때, 주의 길을 갈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고 일어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25년을 지금까지 목사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린 믿음이었을 때는 때로는 아파하며,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시험에 빠져 허덕이며..., 목사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지만, 목사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말씀으로 "죽어라, 그래야 산다." 하시며 강하게 채근하시는 목사님. 그러시면서 몸소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본이 되어 보여주시는 목사님. 오늘도 고회를 앞두신 연세임에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양 무리를 위해 당신은 없다 하시는 목사님!

올해 9월의 어느 날, 하나님의 성산 장성 기도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도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비를 다 맞으시며 끝까지 작업을 함께 하셨습니다. 속옷까지 흠뻑 젖은 상황에 오후 5시가 넘는 시간. '이제 오늘 일과는 끝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비가 그치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다시 나와라." 하시는 겁니다. 아이쿠나! 세상에... 결국 그날 야간 조명등까지 켜고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기까지 연장을 놓지 않으시는 목사님. 역시나 목사님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며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성품이 당신의 모든 것, 재산이든, 혈연이든 상관치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시며 포기하실 줄 모르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을 향하시니 전국과 전 세계를 이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래에도 여전히 살리는 사역을 감당키 위해 30년을 다시 시작하자며 스스로 일을 만드시는 목사님. 서울 4부 예배를 오후 3시로 변경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

며 땀 흘리시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이 계시기에 예수중심교단은 부흥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기에 더욱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1년 일본에서 사역할 당시 목사님께서 일본집회를 마치시고 귀국길에 오르시며 여러 가지 목회의 권면과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상욕아!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진정 목사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오직 사명 감당키 위해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계시어서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건강, 또 건강, 다시 한 번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김상욱 목사

검은콩과 흰콩을 섞는 데는 몇 초면 되지만
그것을 골라내는 일은 쉽지 않다
신뢰를 잃지 마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두려움은 내 삶의 암이다



송구영신예배(2016. 1.1, KBS스포츠월드)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은 첫 시간, 예외 없이 우리는 송구영신(送舊迎新) 예배를 드렸다. 어떤 이들은 새해를 맞아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러 가고, 어떤 이는 동해로 해돋이 보러간다지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올해도 인도하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뵈는 일이다. 일찌감치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들을, 어찌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레 놀리고 정복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선전들은 담대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그들과 우리는 왜 다를까요? 담대하다는 것은 믿는 구석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곳이 어디입니까? 우

리가 믿을 분이 누구입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분만 감동시켜 움직이고, 그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올 때까지 가랑이 사이로 고개가 들어가도록 조아린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드러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탄복하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복의 근원이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감동시

키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다니엘처럼 기도로, 사르밧 과부처럼, 그리고 두렵돈을 드린 과부처럼 물질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2016년, 하나님을 감동시켜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자들의 심령에 울려 하늘과 땅과 땅아래 만물을 담대하게 지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외국인 초청 예배 & 잔치



외국인 초청예배(2016.1.1, 엘투체 컨벤션홀)

2016년 첫날, 구반포에 위치한 엘투체 컨벤션 홀에서 예수중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 초청 예배 및 잔치가 있었다. 새해 첫날을 맞아 뜻 있는 장로들이 인천과 안산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

이 올바로 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타국에서 설움을 받고 임금착취를 당하지만 성공하여 금의환향했고, 타국에서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은 그 나라의 서열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첫째는

자신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진실은 만국 공통 화폐입니다. 더디 통할 수는 있지만 안 통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장의 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눈속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매사 임한다면 정직과 진실이 몸에 밸 것이고, 그것이 당신들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매사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 일이다'하

는 주인의식으로 일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천군과 천사를 들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여 고국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날 중국, 태국을 비롯한 각국의 민속 공연과 찬양이 곁들여져 흥을 더했다. 우리의 국적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한 곳이다. 말과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임을 확인했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16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은 또 다른 30년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고 기대가 더 큰 해였습니다. 특별히 총회장님께서 시작하신 은사집회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기대케 하셨으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

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회를 주신 총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128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고한 대로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풍년이 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 비가 오고 햇볕이 적당히 비추어 주어야 곡식이 풍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피 뿌림이 있었고,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했기에 받은 복입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 가난한 나라를 보면,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 한 끼를 먹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백배로 일을 해도 하나를 얻기 힘들 정도로 고통받는 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네들은 부모도, 자신들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께 있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천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산교회를 개척했을 때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믿을 사람은 우리 교회로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마산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수에게 집중할 때 길이 열렸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인천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고 성도들의 자손들을 교회로 다시 인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조금씩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집중하면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흥해갈라지는 축복이 열립니다. 올해 총회장님께서 선포하신 교단 표어가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려합니다. 또 하나님께 진실하고 집중하려 합니다. 저뿐 아니라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2016년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수께 집중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장영국 목사